

가을철 메밀꿀 향기에 취하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아직은 무더웠던 9월 어느날 봉평의 전기현 전 양봉협회회장의 봉장을 찾았다. 한창 메밀축제 기간이어서 그런지 곳곳에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단체장에서 양봉농가로 돌아온 전기현 회장님. 한편으로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편한 묘한 기분을 요즘 느끼신다고.

활짝 핀 메밀 꽃 만큼이나 봉장의 벌들도 꿀을 물고 오느라 분주했다.

전기현 회장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메밀꿀을 채밀하였는데 약 600kg 정도를 수확했다 한다.

전기현 회장은 “금년에는 비가 안오고 가물어서 계속 꿀이 들어왔다. 흔하지 않은 꿀인데 많은 양을 채밀할 수 있어서 월동식량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을 가뭄으로 월동사양을 늦추는 사람이 많은데 잡화라도 따서 월동식량에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7일 SBS출발 모닝와이드에서 메밀꿀에 대해 방영이 된 뒤로 메밀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 가을 알싸하고 구수한 메밀꿀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지..... **양봉**



메밀꿀



메밀꿀은 메밀꽃을 밀원(蜜源)으로 하는 꿀로 적갈색이나 암갈색을 띤다.

메밀꽃이 피는시기에 맞춰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된다. 메밀꿀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자극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애용되지는 못하고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메밀꿀에는 루틴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 출혈성 질병이나 심장병,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데 좋다.

또한 메밀꿀은 산도가 높으며, 효소가 많아 효소작용의 활성도가 높다. 항세균성 작용이 강해 잘 변질되지 않아 저장성도 좋다. **양봉**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